

북스

어린이 책꽂이



▲신들이 사는 숲 속에서= '우리누나', '힘들어...도 괜찮아' 등의 작품으로 수많은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작가 오카 슈조의 동화. 저자는 동물들이 인간들의 죄를 꾸짖는 재판장을 열어 벌인다는 이야기로 자연과 문명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겪는 입시경쟁과 학벌 사회문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스스로 해보는 지구 환경 활동 1=우리교육 '스스로 해봐!' 시리즈 첫 번째 권. 다양한 실험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키우고 과학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리를 깨닫게 한다. 공기, 물, 지구에 사는 수많은 생명을 살펴 보면서 지구라는 생태계를 이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탐구할 수 있게 했다. <우리교육·9천800원>



▲이토록 뜨거운 파랑=2006년 '몽구스 크루'로 제4회 세계절문학상을 받은 신여랑씨의 장편소설이다. 만화풍이 '파랑'과 함께 울고 웃는 열여섯 청소년들의 가슴 벅찬 성장기를 담았다. 소설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지오와, 이러한 지오를 보며 아파하는 유리를 중심으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창비·8천500원>



▲상식을 뒤집는 크기 빅BIG=지구에서 우주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것'을 한 자리에 모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것'을 소개한다. 대왕오징어, 올림포스몬스터 화산, 북극곰 등 상상을 구체화시키는 흥미로운 사진은 머릿속에 맴돌던 '큰 것'의 막대한 크기를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1천원>



▲황금사과=화가이자 작가인 송희진씨의 그림 동화책. '황금사과'를 통해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을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곳에 자리한 나무에서 황금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황금 사과를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 이기심에 열매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뜨인돌어린이·9천800원>



▲피노키오는 왜 엄령소니를 끌었을까? = '말대 할아버지가 온다'로 2007년 불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힌 박연철 씨의 새 그림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 사는 여덟 가지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민화 문자도를 통해 익살스럽게 들려준다. 문자도의 주인공들이 뛰노는 모습을 그렸다. <사계절·1만8천500원>



▲문익점과 정천의=삼베옷 하나로 겨울을 나던 가난한 백성들을 안타까이 보던 신비 문익점, 식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안목을 지닌 과학자 정천의의 끈질긴 연구,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고 옷감을 짜서 먼 옷을 탄생시킨 여공과 숨은 일꾼들까지. 목화 씨앗 한 톨에 얽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푸른숲주니어·9천500원>

▲자신만의 직업여행=자신만의 시리즈 아홉 번째 권.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직업 이야기 19편을 엮었다. 외교관, 소방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어린이들이 꿈꾸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 귀하고 천황이 없는 직업 등 직업을 갖기에 앞서 어린이들이 지나야 할 마음가짐까지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아이출·9천500원>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지음



미국의 한 중학교 화학실에서 우등생이 흉에 맞아 숨진다. 수사를 맡은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는 범죄 현장의 공기에 남아 있는 냄새를 맡는 기계인 '전자 코'를 가져와 현장에 남아 있는 냄새를 분석한다. CSI는 남자 화장실에 남아있던 여자 향수 냄새를 찾아내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국내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된 미국드라마(이하 미드) 'CSI 라스베이거스 시즌2'에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전자 코'를 이용한 범인 검거가 가능할까? '하리하라'(hari-hara)라는 필명으로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은희씨가 신간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를 통해 그 해답을 던져준다. 하리하라는 인도 신화에서 빛 시작 창조 신 비슈누(Visnu)와 어둠 끝 파괴 신 시바

(Shiva)가 합쳐진 형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후각보다 월등하게 민감한 '전자 코'는 실제로 존재한다. 지난 2001년 노마텍스 회사가 근사용으로 개발한 '피도'(FIDO)는 대표적인 '전자 코'이다. 저자는 '피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몸의 '후각 메카니즘'도 소개한다. 또 'CSI 라스베이거스' '프리즌 브레이크' '그레이 아나토미' '본즈' '성범죄 수사대' 등 국내 케이블 TV에 방영되는 미드에 담겨있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드라마 속 장면을 예로 들어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총 맞은 사람의 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총상을 입어 엄청난 통증을 느낄뻔한 한대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포박포박 말을 한다. 이는 부상을 입으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분출돼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드 '메디컬 인베스티게이션'의 일화도 흥미롭다. 평화로운 미국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괴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국립보건원이 급히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유일하게 한 노인만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원인은 지난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스페



첨단장비와 과학 수사 기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미국 드라마 'CSI 라스베이거스'의 한 장면.

인 독감. 이 노인은 당시 나이가 두 살이었고, 스페인 독감을 앓은 뒤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괴질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몸에서 나이가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을 한 번 앓고 나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 밖에 우리 피부의 표피층, 진피층, 피하조직을 이해한 뒤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 스토크의 '온몸 문신'을 감상하면 더욱 즐거워진다. <살림Friends·1만2천원>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지구촌 마지막 '식민지 각축장'

북극해 쟁탈전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북극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독일 슈피겔 온라인의 북극 전문 기자 크리스토프 자이들러는 '북극해 쟁탈전'에서 오랫동안 강대국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지만, 북극해가 최근 들어 지구에 마지막 남은 '식민지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 국가들뿐 아니라 아이누트족과 유럽연합, 북극이 사회, 독일, 중국에 이르기까지 관련 국가와 기관들이 북극해 영유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북극해가 '식민지 각축장'이 된 것은 천연자원 때문이다. 북극 해저에는 금과 은, 갈륨, 인듐 등 다양한 광물이 다량 묻혀 있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가스과 석유 매장량의 25%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북극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수단이나 국제법 기원이 거의 없어 무력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저자는 "국제법 증강은 외교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운다"고 우려하면서 "북극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외교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솔·1만4천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아공 '로벤섬 수용소' 실화

세상에서 가장 ...



축구를 통해 인종차별과 맞선 남아공 로벤섬 수용소의 감동 실화를 담은 논픽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임'이 번역돼 나왔다. 2010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출간돼 더욱 감명을 준다. 잔혹하고 엄격한 극단적인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한 남아공은 흑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곳이었다. 이에 저항한 사람들은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는 로벤섬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힘겨운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수감자들은 간수 물레 셔츠를 등골에 걸쳐 축구를 하기 시작하고, 1996년 그들만의 축구 리그가 만들어졌고 '마카나 축구협회'가 설립된다. 1천400여 명이 이르는 수용자들 중에서 선수, 매니저, 심판, 코치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3개 리그로 나누어 매 주 리그를 진행했다. FIFA 규정대로 엄격하게 치러진 이 리그는 감옥에 갇혀된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올해 월드컵을 치르는 남아공 축구의 역사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치러진 마카나축구협회와 리그 경기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던 이들의 축구 이야기는 오늘날 역업을 받고 차별당하는 또다른 마이너리티들에게 힘과 용기로 다가온다. <생각의 나무·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도표 결집된 일본 알기

그림으로 읽는 ...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 저의 '국화와 칼'은 전 세계에서 3천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국화와 칼'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일본 관련 출판물 가운데 '일본'과 '일본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낸 해설서로 꼽히는 책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그림으로 읽는 국화와 칼'은 텍스트 위주로만 꾸며져 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책에 300여장의 유카요와 도표 등을 집어 넣어 이해력을 높인 게 특징이다. 300여장의 자료 사진과 도표, 사진, 그림은 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문화적 관점에서 일본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연구했다. 책 제목 '국화와 칼'은 이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두 가지 심리 상태이자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화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고, 칼은 일본 사무라이 계층과 그 정신적 저주인 사무도의 상징이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를 정치구조, 사회 계층, 유희, 처세술, 자녀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 논리정연한 설명을 덧붙였다. <블룸·1만5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심입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문공인중개사 상담 전화 \*011-623-8972 \*010-3613-1189 \*010-3602-2701 모텔 임대매매 전문: ●신축 무인텔 급임대 ●군 단위 모텔,식당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 확보! ●서구양동단독주택매매 ●목포신축무인텔 ●보종금 8억 ~ 10억 ●해남권 ●독점 모텔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광주,목포,순천,여수 ●전주,군산,익산,창원,부산 ●순천 모텔 임대 ●보종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매매 다량 확보!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최순을 전대병원인신부군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로로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안산, 무릉산 자락에 위치하여 통산, 신축, 미용이 편리하고 공기 좋고 경관전 전망성 확보되어 있습니다. 횡동 주택 100부 사용하고 스포드골프, 온드조이이 뛰어나며 수변 안성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접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정성들여 짓은 집입니다. (역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화) ● 급매매가 : 6억 8천만원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 (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용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야전기 ● 조건 : 잔디, 소나무 ● 건축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실내엔터테인먼트 ● 환벵나무, 소나무 미술품 ● 2층 방바닥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용 시공) ● 주민직거래 ● 꼭하실분만전화요망 ● 011-634-4114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건평/실적	최저가	비고
부산	진주	2871/827	1224/724	791/313	4층건물
	진주	187/880	441/140	249/80	4층건물
	계천	221/199	274/121	194/84	2층건물
	계천	135/473	444/140	392/123	3층건물
대구	신안	229/640	443/140	249/80	4층건물
	신안	168/576	394/140	249/80	4층건물
	일곡	289/818	548/140	394/140	3층건물
	일곡	134/457	394/140	140/50	4층건물
울주	울주	424/774	544/140	249/80	4층건물
	울주	328/822	394/140	249/80	4층건물
	울주	235/588	249/140	140/50	3층건물
	울주	824/398	844/140	140/50	4층건물
영양	영양	178/858	844/140	140/50	5층건물
	영양	308/424	444/140	249/80	2층건물
	영양	424/774	544/140	249/80	2층건물
	영양	482/745	644/140	394/140	3층건물
영광	영광	196/481	444/140	394/140	4층건물
	영광	219/377	394/140	249/80	3층건물
	영광	428/615	394/140	140/50	2층건물
	영광	1675/81	444/140	249/80	3층건물
영동	영동	400/238	394/140	249/80	3층건물
	영동	400/238	394/140	249/80	3층건물
	영동	400/238	394/140	249/80	3층건물
	영동	400/238	394/140	249/80	3층건물